

Known in Prayer
Bo Stern Brady
Ephesians #4

15For this reason I too, having heard of the faith in the Lord Jesus which exists among you and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16**do not cease giving thanks for you, while making mention of you in my prayers; **17**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to you a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18**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so that you will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19**and what is the surpassing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These are in accordance with the working of the strength of His might **20**which He brought abou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21**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and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named,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22**And He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23**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Ephesians 1:15-23

15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 **16**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15-23**

We are moved by God's blessings and the richness of His glory to pray for one another in present, powerful, and prophetic ways. Prayer is the language of resurrection (story: language)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풍성함에 감동받아 현재적이고 강력하며 예언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부활의 언어입니다 (이야기: 언어).

In this text, the gifts that are ours and the power with which they are given come together in our lives = resurrection. This is - as Psalm 27 says, "The land of the living". The gifts of God TOWARDS us and the POWER of God FOR Us...at work together in our human lives - accomplishing his good purpose THROUGH us. This is resurrection - the prizes that came on the other side of Jesus's victory over death. This is NOT just for after we move on into heaven...this is for NOW. The kingdom country we occupy, the soil we walk, the bodies we inhabit, the people we impact, the work we do, the way we love....THIS Is resurrection and it begins in prayer. And prayer is not as mysterious as we make it and it's also not as hard as it might seem.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그 선물이 주어지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되어 부활을 이룹니다. 이는 시편 27편에서 말하는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간 삶에서 함께 일하여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후에 얻은 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간 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는 왕국 나라, 우리가 걷는 땅, 우리가 사는 몸,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부활이며,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비롭지 않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Paul gives this language three verbs: 바울은 이 언어에 세 가지 동사를 줍니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기도하다.

Bless
Give Thanks
Pray

Prayer is dialogue. Back and forth. It is woven into our language and our hearts and our thoughts. We pray when we're driving in our car and a friend comes to mind for whom we are concerned, we pray when we're pushing grocery carts down crowded aisles, we pray when waiting in the dentist's office or when we open our bibles in the morning or when we see a tragic story on the news and shoot a wish up to God for hope and help and healing. We pray as we lie in our bed and contemplate the future. We pray when we sing Jesus Loves Me as we rock our babies to sleep or when we stare out over the endless Pacific Ocean and feel deep awe at His workmanship. We often host an internal dialogue that involves God. Help, thanks, wow. Eugene Peterson said: 기도는 대화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생각에 얽여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봄비는 복도를 지나갈 때 기도하며, 차와 대기실에서나 아침에 성경을 열 때, 뉴스에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고

희망과 도움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소원을 보낼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기를 재우며 "예수 사랑하심은"을 부르거나 끝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그의 작품에 깊은 경외심을 느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포함한 내적 대화를 합니다. 도움, 감사, 감탄. 유진 피터슨은 말했습니다:

“I am not saying that everything we do is prayer, but that everything we do and say and think CAN be prayer. It seems to have been that way with Paul. I am also saying that many of us pray far more than we are aware that we are praying. We pray when we are not in a conventional place of prayer. We pray when we are not using the conventional language of prayer. I am saying tha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Luke 18:1) happens a lot, unnoticed and unremarked.” Eugene Peterson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말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또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더 많이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통적인 장소에 있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18:1)는 것이 많이, 알아차리지 않고도 발생합니다." - 유진 피터슨

So let's break down a little what the language of resurrection looks like in our lives as it's outlined in this text. 이 본문에서 부활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씩 분해해 봅시다.

1 Doorway

2 Requests

1 입구 2 요청

The door way into the presence of God: Thanksgiving: Everything starts with thanksgiving. Paul says: I DO NOT QUIT giving thanks for you.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 감사: 모든 것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bless His name. Psalm 100:4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그의 뜰에 찬양함으로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 시편 100:4

(Different slide)

Two Requests:

1. **Wisdom and revelation to know Him better**
2. **Enlightened hearts**

두 가지 요청: 그를 더 잘 알기 위한 지혜와 계시

Wisdom and revelation seems like a very cool thing. Revelation = unveiling. Lottery ticket numbers? Who's going to win the Kentucky Derby? Paul is specific about the best use of this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To Know Him More. So simple, but so powerful. Speaking of prayer, I have been praying this one line from Ephesians over you for the past ___ days: *May God give B4 the wisdom and revelation to know Jesus more.* What if we knew him a little more every day? Every time we read a part of the Bible? Every time we hear a story about something he has done in our world? What if his image in "the eyes of our hearts" kept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What might change in us? What might happen through us? What if our view of him kept improving as we follow him? Many passionate people have done damage in the name of a very blurry or mis-drawn God. This incremental improvement is called Discipleship. And the biggest argument I can make for it is: If people could really see Him as He is...who wouldn't choose to love Him?

밝혀진 마음 지혜와 계시는 매우 멋진 것입니다. 계시 = 베일을 벗김. 복권 당첨 번호? 켄터키 더비에서 누가 이길까요? 바울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최고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를 더 잘 알기 위해.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기도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지난 ___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 에베소서 1:17의 이 한 구절을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B4에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경의 일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의 세계에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눈"에 그의 이미지가 더 명확해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를 통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를 따라갈 때 그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흐릿하거나 잘못 그려진 하나님을 이유로 해를 입혔습니다. 이 점진적인 향상은 제자훈련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주장은: 사람들이 그를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누가 그를 사랑하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ENLIGHTENED HEARTS:

Enlightened hearts is a Paul metaphor - it does not occur in either Jewish or secular literature before him. Paul sees the Holy Spirit as something of a supernatural flashlight, illuminating dark corners of our hearts or our relationships or our world. What needs to be illuminated?

밝혀진 마음: 밝혀진 마음은 바울의 은유입니다 - 이는 그 이전의 유대교나 세속 문학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나 관계, 또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초자연적인 손전등으로 봅니다. 무엇이 밝혀져야 할까요?

Enlightened hearts to know:

- A. **The hope to which you are called**
- B.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 C. **H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HOPE:

RICHES:

POWER:

밝혀진 마음으로 알기: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소망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 우리를 믿는 이들을 위한 그의 지극히 큰 능력 소망: 풍성함: 능력:

The incomparably great power:

- **Raised Jesus from the dead**
-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 **Made Him the head of the Church**

지극히 큰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 그를 오른손에 앉히셨음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음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음

That's a lot of power. It's specifically, power that has established a spiritual world order that is safe, beautiful and good. Jesus is risen, He is firmly enthroned, He is in charge of everything, especially His church. It gives us a clear picture of how safe we are in His goodness, how much we can count on His leadership. Life is still hard, and short and often unfair, but He is good and He is about the renewal of all things - especially us. What is renewal? Hope, healing, freedom & flourishing. This is the life we see in Jesus and it's the life we receive THROUGH Jesus and, therefore, it should be the scaffolding on which our prayer life is built. Our prayers for us, our prayers for the church and our

prayers for the world outside our walls. Hope, healing, freedom, flourishing. The renewal of ALL things.

이는 많은 능력입니다. 이는 영적 세계 질서를 확립하는 특정 능력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선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확고히 왕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특히 그의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선함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그의 지도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짧으며 종종 불공평하지만, 그는 선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 특히 우리를. 무엇이 새롭게 됩니까? 소망, 치유, 자유 & 번영.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본 삶이고, 예수님을 통해 받는 삶이며,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밖 세상을 위한 기도. 소망, 치유, 자유, 번영. 모든 것의 새롭게 됨.

RESPONSE/COMMUNION

Benediction

Miscellaneous Bo notes :

응답/성찬 축복 기타 보 노트:

Thesis: We are moved by God's blessings and the richness of His glory to pray for one another in present, powerful, and prophetic ways.

논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풍성함에 감동받아 현재적이고 강력하며 예언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Ephesians is awash in Paul's prayer
- Prayer is primarily about knowing God and being known by Him, as Paul prays for his readers in 1:17 (A key theme in JMC's *Practicing the Way*)
- Paul is focused on revelation, hope, inheritance, and power
- "Prayer cultivates a sensitivity to realities that are inaccessible to our senses." — EP, *Practicing Resurrection*
- God is as close as our breath, but most people miss him (Cleopas on the road...) because they want something more "impressive." (Is 53:2 = unimpressive!)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1:17에서 그의 독자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JMC의 *Practicing the Way*에서의 주요 주제) 바울은 계시, 소망, 기업,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줍니다.” — EP,
Practicing Resurrection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만큼 가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의
글로바와 같이) 그를 놓칩니다, 그들이 "더 인상적인"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
53:2 = 인상

Tension points: Prayer challenges both the rationalism of the Enlightenment and the
cynicism of Post-modernism that seeks to know God by a different way than the one He
invites us to. These are major and unexamined influences on B4 people.

The language of resurrection is prayer.

It is consistent with who we really are, but we don't have much chance to practice it in
our world devoid of God.

긴장점: 기도는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와, 하나님을 알려는 후기근대주의의 냉소주의를
동시에 도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B4** 사람들에게 주요하고 노출되지 않은
영향입니다. 부활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와
일관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그것을 실천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